

인연

缘

缘

ISBN 978-7-01-011979-3



9 787010 119793 >

定价：35.00元

H559.4
1028

H559.4



NUAA2013080674

H559.4
1028-1

인연

缘

[韩] 李揆亨 著
宋智恩 等 译



人
民
出
版
社

2013080674

责任编辑:李之美

韩文校译:朴善雅

版式设计:汪莹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缘:汉朝对照/(韩)李揆亨著;宋智恩等译.

-北京:人民出版社,2013.5

ISBN 978-7-01-011979-3

I. ①缘… II. ①李…②宋… III. ①诗集-韩国-现代-汉语、
朝鲜语 IV. ①I312.62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3)第078110号

缘

YUAN

(韩)李揆亨著 宋智恩等译

人民出版社 出版发行

(100706 北京市东城区隆福寺街99号)

北京瑞古冠中印刷厂印刷 新华书店经销

2013年5月第1版 2013年5月北京第1次印刷

开本:880毫米×1230毫米1/32 印张:9

字数:180千字 印数:0,001-1,500册

ISBN 978-7-01-011979-3 定价:35.00元

邮购地址 100706 北京市东城区隆福寺街99号

人民东方图书销售中心 电话(010)65250042 65289539

版权所有·侵权必究

凡购买本社图书,如有印制质量问题,我社负责调换。

服务电话:(010)65250042

有缘心相近

——序李揆亨大使新诗集《缘》

李揆亨

我不懂京剧，多年前外交部京剧协会成立时却“被会长”了，现在仍和年轻战友杨洁篪同为“双会长”。想不到在这个岗位上有幸结识了该协会唯一的外籍会员，韩国驻华大使李揆亨阁下。在我这个外行听来，李大使唱京剧的水平接近杨会长。初读李大使诗集《缘》，又意外发现我和他共同点也很多：都在非洲和联合国工作过，都做过发言人和大使，都曾是受宠的孙子、现爱孙子的爷爷，都爱自己的国家和大自然……我们的心立即拉近了。尽管不同点也很明显，包括他会唱京剧、我不会唱韩剧，他有的诗行我永远写不出等等。

不同国家、不同民族的文化存在差异很正常，这就需要沟通。诗言志抒情，用诗沟通特别好。揆亨大使正是不同文化间的架桥者。这本《缘》中的诗像跨越峡谷玲珑桥索，让我们足不出户就能感受到中国和韩国文化的相似之处。作者尊崇我老乡圣人孔子倡导的诚信、孝悌和礼尚往来等理念。诗中的仁爱之心值得称道。

揆亨大使远游过多个国家，“有时像孤守黑夜岗楼的瞭望者”，但依然边放声高歌，一面勤勉工作。比如，他在诗中表示，愿意与中国同行携手让两国关系在“美好友谊、幸福同行”的轨道上加速发展。这不能不引起我一种亲切的共鸣。近半个世纪我经常劳动、寝食在异国他乡，但走到哪里，永恒的眷恋都是祖国和家乡。我祈愿中外友谊长存。我写过：在世界面前我微不足道，和祖国加在一起，才有了些许自豪。

我们都爱亲人。揆亨大使在岳父去世时泪湿沾襟，心愿是“岳父去的地方肯定是一处明亮温暖的地方，岳父肯定在开满鲜花的海边望着大海深处”。当小孙孙生病时，揆亨大使“心好疼，疼得我痛哭流涕”，跪下双膝乞求上苍呵护孩子。这令我感动。让我想起养育我的母亲和奶娘，让我想到如果天下人都有一份爱心，世界真的会更加美丽。

我们都爱自然。从揆亨大使的诗不难发现，他喜欢与天然山水相伴，热爱天空清蓝的金秋，欣赏敲打窗户的细雨，享受北京自家菜园的新鲜小葱，思念别离已久的家乡片片落叶……儒家提出“仁爱万物”，追求人与自然的和谐。在我看来，外交官更要热爱大自然，热爱人类共同的地球家园，并且用行动促进各国人民在保护生态方面的友好合作。

中国和韩国一衣带水，相距并不遥远。韩国有个说法，威海鸡叫，仁川听得到。这个我无法证实，但我亲身

经历过从我家乡青岛飞济州岛比飞海南岛近多了。中韩人民有千条万条理由像两国许多诗人歌唱的那样世代代和平相处，友好相待。

《缘》的中译文版问世也是缘分，好缘分，值得祝贺！

另，听说《缘》的中文译者相当年轻，但译文地道、格调平实，可贵。应该鼓励年轻有为的翻译工作者为增进中韩人民的相互了解和友谊多做贡献。

2013年3月18日

于北京二里沟畔中国翻译协会



李肇星前外交部长和作者 이자오싱 전 외교부장과 필자

인연으로 이어진 마음

- 이규형 대사 시집 <인연> 을 읽고

리자오싱 (李肇星, 前 외교부장, 시인)

나는 京劇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수년전, 외교부 경극회가 설립되었을 때 회장에 ‘추대’ 되어, 지금까지 나의 젊은 戰友인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과 함께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뜻밖에도 경극회의 유일한 외국인 회원인 이규형 주중한국대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경극 門外漢인 내가 듣기에는 이규형 대사와 양제츠 회장의 경극 수준은 비슷해 보인다. 이규형 대사의 시집 <인연> 을 읽으면서 의외로 나와 共同點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 둘 모두 아프리카와 유엔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代辯人과 大使를 지냈으며, 사랑받던 손자에서 지금은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으며, 자신의 국가와 자연을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다. 물론 뚜렷한 차이점도 있다. 이 대사는 경극을 하지만 난 판소리를 하지 못하고, 이 대사의 일부 시문은 나는 영원히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국가와 민족 사이에 差異點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포부와 감정을 표현하는 시는 특히 좋은 소통의 수단이다. 이규형 대사가 바로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인연>에 담긴 시들은 峽谷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처럼, 집밖에 나서지 않아도 한국과 중국 문화의 同質感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작가는 나의 고향이 배출한 聖人 孔子가 주장하는 ‘신의와 성실함(誠信)’과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孝悌)’, 그리고 ‘서로 왕래하며 교제하는 예(禮尚往來)’와 같은 사상을 숭상하며, 시에서 엿볼 수 있는 그의 ‘어질고 사랑하는(仁愛)’ 마음 또한 평가할만하다.

이규형 대사는 수많은 국가를 다니면서, “때로는 어둠 속에 望樓를 홀로 지키는 파수꾼의 심정”을 느꼈지만, 여전히 소리쳐 노래 부르며 열심히 일했다. 그는 시에서, 중국의 동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양국 관계가 ‘아름다운 우정, 행복한 동행(美好友誼, 幸福同行)’의 길을 따라 가속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내 마음속에서 친근한 공명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거의 반세기동안 줄곧 타국에서 일하고 생활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나의 조국과 고향을 그리워했다. 나는 중국과 타국간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기도한다. 그 언젠가 내가, 세계 속의 나는 미미하지만, 조국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던 말처럼.

우리는 모두 가족을 사랑한다. 이 대사는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로 옷깃을 적시며 “밝고 따뜻하고 환한 곳에 가셨으리라, 꽃이 만발한 해변에서 멀리 바다 너머를 보고 계시리라”고 믿었다. 어린 손자가 아팠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울음이 절로 난다”며, 全知全能하신 神에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 나는 그 마음에 감동했고, 나의 어머니와 유모가 그리워졌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을 정말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모두 自然을 사랑한다. 이 대사의 시를 보면, 그가 大自然과 함께하기를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티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황금빛 가을을 사랑하며, 창문을 두드리는 촉촉한 봄비를 사랑하고, 북경 관저 텃밭에서 자라는 신선한 과를 즐기며, 오랫동안 떠나있었던 고향의 떨어지는 낙엽을 그리워한다. 儒家 思想은 ‘만물을 어여삐 여기는 것(仁愛萬物)’을 주장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다. 나는 외교관일수록 자연을 더욱 사랑해야 하며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의 행동으로 각국 국민이 生態界 保護를 위해 우호적인 협력을 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가까운 나라이다. 한국에서는 웨이하이(威海)에서 닭이 울면 인천까지 들린다는 말이 있다. 물론 내가 직접 이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고향인 칭다오(靑島)에서 한국 제주도까지

가는 것이 칭다오에서 하이난다오(海南島)까지 가는 것보다 가깝다는 것은 직접 경험한바 있다. 한중 양국의 수많은 시인들이 노래해왔던 것처럼, 한국과 중국이 代代孫孫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이유는 셀 수없이 많다.

<인연>의 중국어 번역본의 출판 또한 그냥 인연이 아닌, 좋은 인연이다. 축하할 만하다.

덧붙이자면, <인연>의 중국어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이 상당히 젊다고 들었다. 하지만 번역이 자연스럽고 꾸밈없이 잘 완성되었다. 참 귀한 일이다. 젊고 능력있는 번역가들이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데 많이 기여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2013.3.18

북경 얼리거우(二里溝) 중국 번역협회에서.

리자오싱(李肇星)

1940년 10월 칭다오생

1964년 외교부 입부

98-01년 중국 주미대사

01-03년 외교부 부부장

03-07년 외교부 부장

08-13년 全人代(국회)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現 중국 공공외교협회 회장

目 录

有缘心相近——序李揆亨大使新诗集《缘》 李肇星 1

驻足又离开

梅 轩	3
韩中建交20年	7
好邻居	13
莫斯科—第三个冬天 I	17
莫斯科—第三个冬天 II	25
在班基*	31
离开东京*	35
在北京 I *	39
在北京 II *	45
离开北京*	51
离开孟加拉国*	57
戈雷岛 (Ils Goree) *	63
在古巴哈瓦那 (Havana) *	67

相伴大自然

莫斯科—第三个秋天.....	73
秋天, 2010.....	77
山 行.....	81
雨 声.....	83
菜 园.....	85
北京之秋.....	89
北京之春 I	93
北京的雨雪.....	97
北京之春 II	101
秋天, 2012.....	105
公馆小院*	109
新 春*	113
秋 天*	117

心底深处

首尔, 回国后半个月.....	123
心 情.....	127
等 待 III	129
等 待 IV	131

等 待 V	133
对 话	137
山 寺 I *	141
山 寺 II *	145
玉簪花*	149
兰*	153
旅 行 I *	155
旅 行 II *	157
旅 行 III *	161
旅 行 IV *	163

人间故事

希望之函	167
毕业40年	171
无 题	183
小孩遗骸	185
某个葬礼	189
令人痛心的故事	193
打高尔夫球一事	197
“三高”爱乐之友新年音乐会	201

年 岁*	207
山 岭*	211
都 心*	213
无 情*	215
礼 物*	219

家人

夫妻拌嘴.....	225
咱家承嫫.....	229
俊瑞，我的乖孙子.....	233
儿子家的小孩——俊瑞.....	237
生 活.....	241
新年早晨.....	245
承嫫生病了.....	249
丝绸秋衣*.....	253
兄 妹*.....	257
婚礼之后*.....	259
后 记.....	269

목 록

인연으로 이어진 마음.....	리자오싱 4
------------------	--------

머물고 떠나며

매 현 (梅軒)	2
한중 수교 20년	6
좋은 이웃	12
모스크바 - 세 번째 겨울 I	16
모스크바 - 세 번째 겨울 II	24
방기에서*	30
동경 (東京) 을 떠나며*	34
북경에서 I *	38
북경에서 II *	44
북경을 떠나며*	50
방글라데시를 떠나며*	56
고래 섬 (Ils Goree) *	62
쿠바 하바나 (Havana) 에서*	66

자연을 벗하며

모스크바 - 세 번째 가을.....	72
가을, 2010.....	76
산 행 (山行)	80
빗소리.....	82
텃 밭.....	84
북경의 가을	88
북경의 봄 I	92
북경의 비와 눈	96
북경의 봄 II	100
가을, 2012.....	104
공관 뜰에서*	108
새 봄*	112
가 을*	116

마음 속 깊이

서울 - 귀국한지 보름	122
심 정 (心情)	126
기다림 III	128
기다림 IV	130

기다림 V	132
대 화 (對話)	136
산 사 (山寺) I *	140
산 사 (山寺) II *	144
옥 잠 화*	148
난 (蘭) *	152
여 행 (旅行) I *	154
여 행 (旅行) II *	156
여 행 (旅行) III*	160
여 행 (旅行) IV*	162

세상사 (世上事)

희망 편지	166
졸업, 그리고 40년	170
무 제 (無題)	182
어린 주검	184
어떤 장례식 (葬禮式)	188
너무나 아픈 이야기	192
골프 이야기	196
음악을 사랑하는 공직자 연주회	200